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광주 경실련·여성단체연합 등
자전거 국토종단 광주도착 맞춰
총장로우체국 앞 집회·기자회견
정부 차원 추모행사·대책 촉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광주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은 9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 우체국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 촉구 자전거 국토종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광주지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9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전신질환 인정·판정기준 완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등 광주시민단체는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부산까지 총 557.45km 거리를 자전거로 국토종단에 나선 김기태 가습기넷 위원장의 광주 도착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994~2011년까지 살균제는 연간 60여만 개가 판매돼 수많은 가정에서 사용돼 왔다”며 “본인들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7월 9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접수된 피해자만 6461명이고 공식적으로 신고된 사망자만 1415명에 달한다”며 “피해자 보상 강화와 함께 범정부적 가습기살균제 피해 TF팀 구성·정례 보고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차원의 피해자 추모 행사 개최 등 정부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토종주 중간에 주요 거점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진행하고 있다. 10일은 목포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종주가 끝나는 12일에는 출발 지점인 청와대 앞으로 돌아와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그는 “무더운 여름인 7월이지만 전국을 자전거로 누비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진상과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

해구제가 끝났다, 가해기업들이 처벌받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싶었다”고 자전거 종주배경을 설명했다.

고영삼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는 물론, 재발방지대책 마련까지 정부가 종합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295명에 달하고, 이중 87명이 숨졌다.

광주지역에서 특조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신청한 사람은 164명에 달하고,

이 중 4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로는 북구 52명(사망 14명), 남구 41명(10명), 광산구 34명(5명), 서구 25명(4명), 동구 12명(8명) 순이다.

전남지역에서 신청한 피해자는 13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6명이다. 순천이 33명(사망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양 15명(5명), 여수 14명(7명), 목포시 10명(2명), 무안 10명(4명), 나주시 8명(5명), 장성 7명, 담양 6명, 화순 5명, 고흥 4명, 진도 3명, 함평 3명, 영광 3명, 영암 2명, 장흥 2명, 완도 2명, 보성 1명, 신안 1명, 강진 1명, 곡성 1명 순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교사 유튜버, 광고 수익 요건 넘으면 ‘겸직 허가’ 필수

교육부 활동 지침 마련 배포

학습·교육 관련 등은 적극 장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로 꼽힌 ‘유튜버’(YouTuber)를 교사들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의 ‘교원 유튜버 활동 북리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처럼 교육부가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을 장려하고 나선 것은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유튜브’(YouTube)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교사 유튜버’도 갈수록 늘어나 광고 수익이나 겸직 기준 등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교육부가 올해 3~4월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총 934명의 교사가 유튜브 채널 총 976개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 교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40개로 파악됐고, 전남에서도 42개의 채널에 교사들이 만든 동영상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구독자가 1000명 이상으로 단순 취미 수준을 넘은 채널도 전국적으로 97개나 됐다.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는 ‘래퍼 초등교사’로 유명한 ‘달지’(이현지 경기 광명 빛가온초 교사)로, 채널 구독자가 28만 2000여명에 달하는 등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거나 학생 교육 활동을 공유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교육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을 제외한 취미

·여가 등 사적인 용도는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유튜브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금지하고, 특정 인물 비방, 비속어 사용,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광고 수익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광고 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업체의 협찬을 받아 상품을 작·간접 홍보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제한된다. 금지된 행위를 일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거나 금지 행위가 포함된 영상을 게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북리지침은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 학교 교사나 기간제 교사까지 모두 적용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하반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완도 금일도 개농장 구조 개틀
동물단체, 보호장소 지원 호소

동물단체들이 완도의 한 개농장에서 먹이도 없이 질병 속에 방치된 개들을 구출했다. 동물단체들은 구출한 개들을 돌볼 장소와 의료용품 등이 부족해 시민들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는 “지난달 말 완도군 금일도의 한 개농장에서 방치된 개 24마리 중 14마리를 구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제보를 받고 완도군 공무원, 경찰과 함께 현장 방문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철창 안에 갇힌 개들이 먹이와 물도 없이 방치된 상황을 확인했다. 전체 개 24마리 중 일부는 짧은 줄에 묶힌 채 오물 속에서 지내고 있었고, 철창에 걸려 귀가 떨어져 나갔지만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개도 있었다. 농장 인근에서는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 사체 5구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6 달뜨기 13:26
해질 19:49 달질 00:35

다시 찾아온 장마

오전에 비 시작돼 하루종일 내리겠다.

광주	비	20/26	보성	비	19/24
목포	비	21/25	순천	비	21/26
여수	비	21/24	영광	비	20/26
나주	비	21/26	진도	비	20/25
완도	비	21/24	전주	비	20/26
구례	비	20/26	군산	비	20/26
강진	비	21/25	남원	비	20/26
해남	비	20/26	흑산도	비	20/23
장성	비	19/2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안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부안바다	북동~동	1.0~2.5	북동~동	1.0~2.5
남해안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남부안바다(동)	북동~동	1.5~2.5	북동~동	2.0~3.0
면바다(서)	북동~동	1.5~3.0	북동~동	2.0~3.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42	08:09
여수	13:26	20:47
	09:08	02:49
	21:45	15:51

◇ 주간 날씨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	☁	☁	☁	☁	☁	☁
21/28	21/29	21/30	22/31	22/32	22/32	22/30

장마전선 북상 내일 오전까지 최대 40mm 장맛비

광주·전남지역에 10일 새벽부터 11일 오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0일 아침에 남해안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이날 오전에 광주와 전남 전역으로 확대 되겠다”고 9일 예보했다.

광주와 전남에 내리는 이번 장맛비의 강수량은 10~40mm로 예상된다. 비는 장마전선이 일본 부근으로 남하하는 11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유동적이지만 일본 북동쪽 해상 고기압이 강해져 장마전선의 이동이 느려지면 강수량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맛비가 내리는 10~11일에 8~10%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0도·전남 19~21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26도·전남 24~26도로 분포되고,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1도·전남 20~22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28도·전남 26~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해서부 먼바다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해상에서 파도가 1.5m에서 3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백범기념관 어린이 백범학교 16일까지 30명 모집

광주백범기념관과 (사)백범문화재단은 “오는 8월 광주 초등학생 5~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제4회 나라사랑 어린이 백범학교’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 백범학교는 ‘국력은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는 김구 선생의 정신을 배우

고 나누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참가희망 학생은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광주백범기념관 홈페이지(kimgu.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가자에게는 교육자료집·백범일지·중식을 제공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